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

# 국제거래 중요성 인식 동북아 전문인력 양성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은 중국·일본 등 동북아지역에 정통한 국제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대학원은 방학을 이용해 현지 언어 연수, 해외 인턴십과정, 고급영어, 실무영어 등을 이수시키고 있다.



국제통상학과 수업이 진행되는 인하대학교 내 6호관 건물 전경

‘국제통상학과’와 ‘교통물류학과’라는 두개의 학문분야가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안에서 만났다. 일반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두 분야가 이렇듯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우대학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기업활동이 국제통상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통물류 문제는 국제통상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점차 세계화되어 가는 기업활동을 고려할 때, 양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분석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국제통상 및 물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 실무과정과 지역학 접목한 수업

이 대학원은 지난 1981년 설립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통학과가 1995년 교통대학원으로 분리됐다가, 작년 3월에 다시 국제통상 및 교통물류분야 사이의 중요한 접점을 인식, 국제통상물류대학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대학원은 국제통상학과와 교통물류학과와 두개 학과로 구성돼 있는데, 국제통상학과는 인천에 위치해 있는 인하대 본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며, 교통물류학과와 수업은 서울역 앞에 자리하고 있는 한일빌딩 내에 마련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취득자나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지원자가 무역업, 물류업, 증권간부 및 5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각종 공·사기관의 여성관리자인 경우 입학 전형 시 가산점이 부가된다.

국내에서 거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제통상물류대학원의 설립은 애초 인하대학교에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에 정통한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국제통상분야 특성화사업의 일환이다.

국제통상물류대학원에서는 이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방학을 이용한 현지 언어연수, 해외 인턴십과정, 각 전공과정별 고급영어 및 실무영어 이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통상학과에서는 일반적인 무역학이나 국제통상 실무 관련 교과과정과 함께 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학을 접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원장은 “국제거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자체를 잘 알아야 하며, 따라서 협의의 국제통상학 교육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학을 접목하여 종합적 능력을 보유한 국제통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본교의 국제통상분야 특성화 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제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며 그 의의를 설명한다. 이 외에도 해외대학 외국인 교수 및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과목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이 해외연수 및 해외 인턴십 과정에 참여할

경우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학과와 경우, 이 학과가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입학생 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지만 국제거래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이 분야가 중요한 실천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로 주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원자 부족 문제는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학위수여 대상학과로 인정받는 등 독자적 체계를 가진 학문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어서 “한국의 동북아 물류기지화 전략이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내 경제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제반 여건들을 고려할 때 국제통상학과 동북아 지역학, 그리고 교통물류학의 연계를 통한 본 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김대학원장의 전망이다.

### 국내 물류분야 발전에 선도적 역할 기대

교통물류학은 1970년대 초 미국에서 기업경영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물류분야의 학술적 연구 및 기업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초점이 하나의 기업 내에서 통합 물류관리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물류분야 연구의 초점은 단일기업 차원을 넘어 기업 간 통합물류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따라 공급 체인이 복잡해지고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의해 새로운 물류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해지는 변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통상 거래와 교통물류분야를 유기적이고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문제가 대두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통상물류대학원은 앞으로 물류분야의 발전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 6월 중국 세미나 연수때 찍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생들 모습

그러나 그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현재 국제통상물류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국제통상학과 교통물류학 각각의 전공 과정 내실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대학원의 단기적인 발전 계획은, 국제통상학과에 있어서는 국제통상학과 지역학이 접목된 교육과정에 따른 충실한 교육을 통해 해당분야의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교통물류학과는 교통물류 전문교육 명문으로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는 최선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는 최우수 대학원으로서의 위상 유지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제통상분야와 교통물류분야가 접목된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박사과정까지 설치된 전문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국내 최우수 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진우대학원장이 이 대학원의 자랑으로 삼는 것은 국제통상물류대학원이 경제학, 경영학, 무역실무, 교통·물류 등이 결합된 매우 학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낱말이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현실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 시각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매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대표적인 학제적 학문인 국제통상학에 동북아 지역학까지 접목된 본 대학원의 국제통상학과와 교통물류분야에 관한 학제적 접근에 입각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교통물류학과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보다 높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려는 특수대학원 지망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기업·경제활동이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그 미세한 분야들에 대한 다국적 시각을 갖춘 종합적 전문가가 경제분야에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종합적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㉟

장진선 <본지 객원기자>